

“배달비도 N분의 1”...직장인들 ‘지출 다이어트’

광주은행, 소액 할부족 증가...광주·전남 구내 식당 이용액 20% ↑ 편의점·대형마트 PB상품 구매·배달비 아끼는 ‘공동구매’ 등 늘어

만원 한 장으로 점심 끼니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직장인들은 카드 소액 할부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와 물건을 함께 사며 배달비를 아끼는 ‘공동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고급 리·고물가 시대를 버텨내고 있다.

14일 광주은행의 KJ카드 할부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소액 할부 이용 건수는 올해 1~10월 기준 13만9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760건)보다 1471건(1.1%)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은행 카드 고객들은 소액 할부를 1만

4739건 이용했는데, 이는 전달보다 701건(5.0%) 늘고 지난해 동기보다는 1050건(7.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할부를 이용한 금액은 모두 99억5500만원으로, 1건당 7만 1500원 정도를 할부 결제한 셈이다.

이처럼 소액 할부 결제가 늘어나는 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값싼 지갑 사정을 고려해 구매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카드 결제 부담을 줄이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통큰 소비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광주은행이 올해 내놓은 ‘모임서비스’와 ‘모임적금’은 모임 비용을 철저히 각출하고 목돈을 마련하려는 MZ 세대 심리를 잘 겨냥한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절약이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한카드 외식업소 가맹점 매출액으로 산출해낸 전체 카드 매출액을 보면 지난 7월 광주·전남 기관 구매식당 매출액은 12억원으로, 전달(10억원)보다 20% 증가했다.

올해 1~7월 구내식당 카드 매출액은 64억원(광주 16억원·전남 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억원)보다 2억원(3.2%) 늘었다.

각종 공공요금과 교통비, 월세 등 고정비를 줄이기 힘든 소비자들은 이른바 ‘식비 다이어트’를 감행

하기도 한다.

외식 대신 한 끼 4000~5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편의점·대형마트 도시락을 사 먹거나 비교적 값이 싼 자체 상표(PB)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혼자 사기 버거운 수량의 상품을 ‘N분의 1’로 나눠 사거나 배달비를 아끼는 공동 구매도 다양한 플랫폼에 도입되고 있다.

배달 모바일 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4월부터 배달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는 공동 구매 시스템인 ‘함께주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함께주문’은 주문 시 여러 사람과 링크를 공유해 각자 원하는 메뉴를 담고 하나의 주소지에서 음식을 받는 서비스다.

‘쿠팡이츠’는 지난 8월 말부터 각자 주문하되 같

은 장소에서 받는 ‘친구 모아 함께 주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도 공동 구매 서비스 ‘같이사요’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일정한 구역(동네) 주민들끼리 함께 사고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전 세대와 달리 근검절약하는 소비 활동을 하나의 ‘놀이’로 여기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다.

하루에 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 또는 ‘5000원 챌린지’와 모바일 앱으로 각종 포인트를 모으는 ‘애플테크’(앱+재테크) 등도 직장인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수상

탄소섬유 독자 기술 개발 등 기술혁신 분야 선도 공로



조현상 부회장

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누구보다 최선만을 다한 효성 가족들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부회장은 또 “화학 공학 학도로서 교수를 꿈꾸었던 조석래 명예회장의 리더십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기업연구소인 효성 기술원이 6000건에 이르는 특허출원을 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태동시킨 혁신의 산실이 됐다”면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혜안과 열정이 효성의 가장 든든한 기초이자 철학이 됐다”고 역설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날 글로벌 넘버 원(NO. 1) 타이어코드 제조사로서의 위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의 조직이나 문화에 접목시키고 이를 개선, 발전시켜온 혁신적인 ‘기술경영’에 의해 탄생했다”고 언급하며,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기술 경영을 통해 원하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산업계의 일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가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됐다.

효성첨단소재는 14일 기술경영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술경영경제학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40여개 대학의 약 2500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 정책 및 혁신 경영 분야 국내 최대의 학회다.

효성첨단소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고, 세계 4번째로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와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등 기술혁신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을 직접 수상한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효성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Innovation Management)로 표현되는 기술경영의 구현 과정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것은 조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에너지를 아끼시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승관·오른쪽)는 14일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전기 난방기 사용을 되도록 줄이자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했다.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절감과 사육 에너지 절감 등 강도 높은 지구 노력을 들이고 있다. <한전 제공>

가상화폐 위기 확산...비트코인 7% 급락한 2100만원대

FTX 파산신청에 급락세 가속

14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210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177만원으로 24시간 전(2335만원)보다 6.8% 급락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7% 하락한 21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162만원에 거래돼 24시간 전(176만원) 대비 8% 떨어졌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신청을 한 이후 가상화폐 시장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FTX가 이어 글로벌 15위권의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가 13일(현지시간) 20%대 급락하면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12일 FTX에서 8700억원어치 가상자산이 사라져 회사 측이 해킹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자금 유출은 FTX가 하루 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챗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에 이뤄졌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위기는 국내 거래소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FTX가 발행한 코인인 FTT를 상장한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FTT 거래 및 입출금이 종료된다. 이들 거래소는 FTX 파산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10일 FTT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모니터링해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4.65 (-8.51)
↓ 코스닥	729.54 (-1.68)
↑ 금리(국고채 3년)	3.850 (+0.016)
↑ 환율(USD)	1325.90 (+7.50)

aT, 외식업체육성자금 용자 지원...22일까지 신청

외식 사업자들의 국산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자금 용자가 지원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구매를 위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용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자 지원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용자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